

### 사순절 「사랑의 헌금」에 대해

이 세계는, 의미없이 무질서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질서위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서 존엄을 부여하시고, 각자의 사명도 부여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질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생명이 그 존엄을 빼앗기고,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은 인간자신의 과신과 욕망에 의해 왜곡된 세계를 낳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올해의 사순절 메세지에서,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재인식하고, 인간의 탐욕에 자신을 맡기지 말고, 겸손히 서로 공존하는 관계를 낳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서로 도움을 주는, 하느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이러한 행동으로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는 회심(참회)이 불가결 합니다.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모든 이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기를 충실히 계속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빼놓을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의 하나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랑의 봉사에 힘쓰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본질로서 살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하느님께 받은 선물인 생명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일은, 바로 사랑의 봉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사순절에 「기도, 절제, 사랑의 봉사」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을 바로 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헌금은, 학생으로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랑의 봉사입니다. 이 사십 일간,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협력해 주셔서, 교회의 사랑의 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하느님께 받은 선물인 생명을 지켜나갑니다.

긴급재해원조에 그치지 말고, 국내외에 있어 위기에 처해있는 많은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위해,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소수민족의 아이들의 교육지원과 여성의 자립지원등, 긴 시간을 들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지원을 위해서도, 사순절에 모이는 헌금은 불가결 합니다. 카리타스재팬이 행하는 지원은, 물론 여러분의 모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삼분의 일이 사순절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올 해의 사순절에도, 여러분의 절제의 마음으로 나누어 지는 사랑의 마음이,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사순절 헌금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